

유자녀 맞벌이 부부의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척도 개발*

Development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scale
for work-family spillover in working couples with children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 수 장 윤 옥**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강 사 정 서 린***

Dept. of Home Economic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
Professor Jang, Yoon-Ok
Dept. of Home Economic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
Lecturer Jeong, Seo-Lee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V. 요약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scale for the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work-family spillover in working couples with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working wives and husbands with children in Daegu. Two surveys were administered, eliciting 243 respondents and 227 respondents, respectively. Then a series of tests were run to analyze the data, including item-to-total correlation, Cramer's V coefficients, item discrimination, Cronbach's α , and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results yielded that, first, a preliminary 102 items were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literature review, and this was narrowed down to 72 items selected with the help of experts. Through preliminary, primary and secondary survey analysis, the scale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1019292).

** 주저자 : 장윤옥(yojang@knu.ac.kr)

*** 교신저자 : 정서린(leen412@hanmail.net)

for the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work-family spillover was developed and validated, with a 36 items scale, 18 items for work to family spillover and 18 items for family to work spillover. Furthermore, the scale constructed three spillover processes - time interference, energy depletion, and psychological distraction - and consisted of four different domains of family life into which spillover occurs - namely marital relationship, parent-child relationship, leisure, and housework. The internal reliability was evaluated to show a confidence range of .85 ~.92 for each factor.

Key Words : 전이(spillover), 일-가족 전이(work-family spillover), 가족-일 전이(family-work spillover), 전이과정(spillover processes)

I. 서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보편화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과 가족의 경계를 오가면서 살고 있지만(Clark, 2000) 사회 전반적으로 ‘일 중심적’ 가치관이 팽배하면서 가정생활의 중요성과 가치가 도외시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일 영역과 가족 영역이 서로 분리되고 심지어는 대립되는 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Miller, 2001). 더구나 경제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는 개인으로 하여금 보다 일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원들이 각자 자신의 일에 보다 몰두할수록 가족생활은 고유의 모습과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점차 힘들어지고, 가정에서 가족원들이 함께 하는 시간 역시 노동시간과 일의 압력에 적응할 수 밖에 없어져서(Hochschild, 1997) 끊임없이 일-가족 양립 갈등이 유발된다고 하겠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률이 1990년 46%에서 2012년에는 49.7%까지 증가하였으며, 결혼·육아 등으로 30~39세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률이 크게 하락하였다가, 40대 초반부터 다시 증가하는(통계청, 2012)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우리 나

라 가구 중 약 1/3 정도가 맞벌이 부부(통계청, 2009)이며, 맞벌이 부부 가정은 두 배우자 모두가 직장 일과 가정 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일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에는 여성의 학력이 고학력화 되고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하여 가정에서의 남편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요구 또한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강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맞벌이 부부의 남편들은 지금까지보다 가사노동을 더 많이 분담하고, 자녀양육의 책임을 더 많이 공유하도록 요구받고 있을 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더 치열한 경쟁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또 전통적 성역할이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 주부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여전하면서 직장에서의 역할 기대와 요구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취업주부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맞벌이 부부 모두가 일-가족간 전이로 인해 과거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겠다. 가정은 어느 한쪽 배우자의 노력만으로 형성·유지·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배우자 모두의 노력과 어울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므로 두 배우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전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일-가족 전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일-가족의 긍정적·부정적인 전이에 대해 많은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서로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Brisbois, 2002; 정영금, 2006; 원숙연·박지원, 2009; 송다영·장수정·김은지, 2010; 김성경, 2011)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이들의 자원상태에 따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일의 전이가 펼쳐지는 가정환경 또한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가족 전이의 과정이나 전이가 발생하는 가족생활의 여러 영역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Small과 Riley(1990), Miller(2001)는 전이를 다차원적인(multidimensional) 개념으로 파악하여 일-가족 전이과정과 전이발생영역을 규명하고 있고, Carlson, Kacmar와 Williams(2000)는 일-가족 전이를 일이 가족에, 가족이 일에 미치는 전이라는 2가지 전이유형과 전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시간, 긴장, 그리고 행동의 3차원으로 구분하여 6가지 차원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장 알맞은 연구모델임을 검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가족 전이를 다차원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일-가족의 전이과정과 전이가 발생하는 가족생활의 하위영역을 보다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다면 일-가족 전이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가족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가족 전이를 분리된 과정으로 측정하는 것은 일-가족 전이를 긍정적·부정적 전이로만 파악하고 있는 선행연구들보다 일-가족 전이에 대해서 보다 더 폭넓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한다(Miller, 2001). 이와 같은 일-가족 전이에 대한 다차원적 측정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일-가족 전이를 하나의 단일개념으로 보거나 일방적인 구성개념으로 본 연구들이 많고(배지혜·서혜영·이숙현, 2002), 일-가족 전이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일-가족 전이 척도를 사용

한 연구들은 주로 서구사회에서 수행되고 있어 이들 연구결과들을 우리 나라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전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서구사회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일과 가정의 정체성을 분리하는 경향이 강하고, 양성평등 의식이 팽배해 있는 사회이다. 반면에 우리 사회는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집단주의의 성향이 강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연속적으로 변화해 온 서구사회와 달리 급속한 사회변화를 경험한 우리 사회는 전통적 가족주의와 근대적 개인주의의 혼재와 충돌을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차원에서 극렬하게 경험(최인영·최혜경, 2009)하고 있어 우리 나라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전이 경험은 서구 여성의 일-가족 전이 경험과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맞벌이 부부의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나라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유성경·홍세희·박지아·김수정(2012)도 양방향 일-가족 갈등 척도를 타당화 하는 과정에서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양방향성 외에도 다차원적으로 유형을 분류한 일-가족 갈등 척도가 개발되고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나라 여성의 일-가족 갈등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서구에서는 다차원적인 일-가족 전이 척도를 이용하여 일-가족 전이과정과 전이가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생활 영역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일-가족의 전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가족 전이과정이나 전이가 발생하는 가족생활의 각 영역에 관한 연구결과는 거의 제시하고 않고 있다. 더구나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전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드물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연구결과들도 일관성이 없음을 볼 수 있

다. 따라서 타당하고 신뢰로운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척도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전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전이를 일이 가족에 미치는 일→가족 전이유형과 가족이 일에 미치는 가족→일 전이유형으로 구분한 뒤 일-가족 전이과정과 전이가 발생하는 가족생활 영역을 규명하여 타당하고 신뢰로운 다차원적인 일-가족 전이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맞벌이 부부가 경험하고 있는 일-가족 전이의 구체적인 과정과 전이가 발생하는 가족생활 영역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유자녀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전이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취업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및 여성정책과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일-가족 전이

지금까지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면서 다중역할 수행으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역할 중심의 일-가족 갈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일-가족의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여겨지던 일-가족 갈등에 관한 이론적 관점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으로는 우선 직장 일과 가정은 분리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분리모델, 두 영역은 상호영향을 미치는 하지만 두 영역에서의 요구 수준이 높아서 개인들은 두 영역에서 어려운 선택과 갈등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가정

하는 갈등모델, 한 영역에서 만족되지 않는 경우 다른 영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상을 받고자 한다는 보상모델, 일-가족 영역의 상호영향의 유기성을 강조하며 하나의 영역이 다른 영역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전이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과 직장은 서로 쉽게 침투될 수 있으므로 역할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족의 통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경계모델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전이모델은 갈등모델이나 보상모델에 비해 일-가족 영역간 상호작용의 유기성을 강조한다. 즉 한 영역이 다른 영역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 기반한 것으로 한 영역의 활동이 다른 영역의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원인을 제공한다(송다영·장수정·김은지, 2010)는 것이다.

또 일-가족 갈등 연구에 비해 일-가족 전이에 대한 연구는 직장 일과 가정 일을 동시에 담당하면서 요구·획득되는 자원을 중심으로 두 일이 서로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써 **Crouter(1984)**는 직장에서 문제해결 팀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가정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때 동일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일-가족 전이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에 **Piotrowski, Chone와 Coray(1993)**는 어머니가 일로 인해 우울이나 다른 부정적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은 가족생활에 전달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좋은 가정환경을 제공하는데 제약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가족 전이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가족 전이 이론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송다영·장수정·김은지(2010)**, **원숙연·박지원(2009)**은 가정생활이 직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는 직장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한다. **Brisbois(2002)**도 남녀 근로자들은 가족생활이 일에 미치는 전이보다는 일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전

이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전이는 대부분 부정적이라고 보고한다. 김성경(2011)은 일에서 가족으로의 전이는 부정적 전이가 긍정적 전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가족에서 일로의 전이는 긍정적 전이가 부정적 전이보다 높다고 한다. 그러나 정영금(2006)은 기혼직장인들이 일→가족, 가족→일 전이 양방향 모두에서 부정적 전이 보다는 긍정적 전이를 더 크게 지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일-가족 전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과 가족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역할과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 뿐 아니라 일이 가정생활에 자극을 주고 도전이 된다는 긍정적 영향의 측면도 포함한다는 차원에서 일-가족 갈등 연구의 영역을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이 모델의 관점에서 일-가족 전이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2. 다차원적 구조의 일-가족 전이

일-가족 전이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일-가족 전이라기 보다는 일-가족 갈등의 개념으로 접근하였으며, 일-가족 갈등을 양방향적 구조를 가진 단일차원으로 여기고, 일-가족 갈등의 수준이 연속선상에 존재한다고 보았다(Ford, Heinten, & Langkamer, 2007).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일-가족 갈등이 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가족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기(유성경·홍세희·박지아·김수정, 2012) 때문에 일-가족 갈등의 이해에 제약을 주게 된다. 최근의 연구들은 일과 가족 사이의 갈등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에서 가족으로, 그리고 가족에서 일로의 두 방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Byron(2005)은 일-가족 전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요인들이 일→가족 전이와 가족→일 전이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며, 일→가족 전이와 가족→일

전이는 서로 관련성은 있지만, 구분된 전이 형태라고 한다. 따라서 일→가족 전이와 가족→일 전이의 양방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일-가족 전이에 대한 이해에 제약을 주게 되므로, 일-가족 전이 척도는 일→가족 전이와 가족→일 전이를 모두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유성경 등(2012)도 서구의 연구들은 일→가족 갈등과 가족→일 갈등의 양방향 갈등을 모두 다루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에는 일→가족 갈등과 가족→일 갈등을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이들은 우리 나라 기혼직장 여성들을 대상으로 Cinamon과 Rich(2002)가 수정·개발한 총 14 문항의 양방향 일-가족 갈등 척도의 타당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적어도 한명 이상의 만 1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전국의 기혼 직장인이며, 이 척도는 일→가족 갈등 그리고 가족→일 갈등으로의 두 방향을 모두 고려하였고, 일→가족 갈등과 가족→일 갈등의 양방향성 모형을 검증하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Frone, Russell과 Cooper(1992)는 일→가족 갈등과 가족→일 갈등간에는 비대칭성 문제가 존재하여 일→가족 갈등과 가족→일 갈등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 방향성 중 어느 한 측면에서 갈등이 더 자주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가족→일 갈등보다 일→가족 갈등이 세배 정도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하면서 가족이 일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일이 가족 영역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김진화·한경혜(2002)는 30~50대 취업한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일-가족 전이에 관한 연구에서 남녀 모두 일에서 가족으로의 부정적 전이가 가족에서 일로의 부정적 전이보다 높다고 말한다. 또 배지혜·서혜영·이숙현(2002)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일-가족 전이와 부모역할 만족도와 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아버지가 경험하는 일-가족 전이 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며, 일과 가족생

활의 요구가 상충될 때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 자 하는 개인은 일보다는 가정을 조절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일-가족 전이는 양방향적인 관계로써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상호순환적인 특성을 지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가족 전이는 부정적인 전이와 긍정적인 전이로 구분되는데, 부정적인 전이는 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일-가족 갈등으로 여겨져 왔으며, 최근에는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으로 인한 자원의 증가나 일과 가족 모두의 성공과 균형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전이에 대한 연구(Brisbois, 2002; Grazwacz, Almeida, & McDonald, 2002; 원숙연·박지원, 2009; 김옥선·김효선, 2010; 김성경, 2011)들도 수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가족 전이의 양방향성을 전제로 일이 가족에 미치는 일→가족 전이와 가족이 일에 미치는 가족→일 전이로 전이유형을 구분하고, 일-가족 전이는 긍정적·부정적 전이가 모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Allen, Herst, Carly와 Martha(2000)은 70~90년대의 일-가족 갈등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나서, 타당화 되지 않은 문항의 사용과 일→가족 갈등과 가족→일 갈등을 구별하지 못하는 다차원 측정은 피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타당화 절차를 거친 일-가족 갈등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데 Stephens와 Sommer(1996)는 일-가족 갈등을 시간근거, 긴장근거, 행동근거 갈등의 형태로 구분하고, 일이 가족에 미치는 갈등을 측정하였으며, Netemeyer, Bloes와 McMurrian(1996)은 일→가족 갈등과 가족→일 갈등을 각 5문항씩 총 10문항을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 Carlson과 그의 동료들(2000)은 일-가족 갈등을 일→가족과 가족→일로 나누고, 그 갈등의 유형을 시간근거, 긴장근거, 그리고 행동근거의 3차원으로 구분하여 6가지 차원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장 알맞은 연구모델임을

검증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우중웅·이찬형·김지은(2009) 역시 이들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서영·박정윤·김양희(2008)가 기혼 남녀의 일-가족 갈등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일-가족 간 갈등 척도를 일→가족 갈등과 가족→일 갈등의 양방향과 시간갈등, 긴장갈등, 행동갈등의 3개 유형으로 구성된 6차원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척도의 타당화 과정은 거치지 않았으며 .68~.83 사이에 분포하는 Cronbach α 계수만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전이의 과정과 전이발생영역을 세분하고자 한 Small과 Riley(1990), Miller(2001)는 일-가족 전이를 전이가 발생하는 3가지 과정과 4가지 가족생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시간 방해(time interference), 에너지 고갈(energy depletion), 심리적 혼란(psychological distraction)의 전이과정이 있으며, 결혼관계, 부모-자녀관계, 여가생활, 가정관리의 가족생활 영역에서 전이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를 일이 가족에(일→가족), 그리고 가족이 일에(가족→일) 미치는 전이유형으로 구분하고, 시간, 심리적 긴장, 에너지라는 3가지 전이과정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여가생활, 가정관리의 4가지 전이 발생영역으로 구조화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적어도 자녀가 1명이상 있는 맞벌이 부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녀의 존재는 가정생활의 구조와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고, 일-가족 영역에서 역할조정에 있어 특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맞벌이 부부에게 발생하는 일-가족 전이와 홑벌이 부부에게 발생하는 일-가족 전이는 그 양상이 다를 것이

므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남·녀를 각각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맞벌이 부부를 쌍으로 조사한 자료를 함께 분석할 경우 발생하는 두 배우자간의 일-가족 전이의 상관관계가 분석결과에 미칠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직업에 따라 근로자의 특성이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직업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 <표 2>와 같다.

2. 연구절차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척도를 개발하고자 첫째,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구성된 일-가족 전이의 다차원적 구조를 바탕으로 일-가족 전이 척도의 내용 및 준거를 정립하고 예비문항들을 작성하였다. 둘째, 예비문항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타당도를 검토·수정하여 예비척도를 구성하였다. 셋째, 예비척도를 이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차 본 조사를 위한 1차 척도를 마련하였다. 넷째, 1차 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2차 본 조

<표 1> 1차 본 조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34)		
특성	내용	인원(%)	특성	내용	인원(%)
성별	남	98(41.9)	가계월 소득	200만원 미만	2(0.8)
	여	136(58.1)		201~300만원	40(17.1)
주거유형	자가	152(65.0)		301~400만원	77(32.9)
	전세	82(35.0)		401~500만원	91(38.9)
남편 연령	30세~39세	64(27.4)		501~600만원	17(7.3)
	40세~49세	143(61.1)		601만원 이상	7(3.0)
	50세 이상	27(11.5)	아내 연령	30세~39세	105(44.9)
남편 학력	중졸이하	4(1.7)		40세~49세	105(44.9)
	고졸	41(17.5)		50세 이상	24(10.2)
	전문대	40(17.1)	아내 학력	중졸이하	8(3.4)
	대졸	117(50.0)		고졸	63(26.9)
대학원 이상	32(13.7)	전문대		54(23.1)	
		대졸		102(43.6)	
남편 직업	시간제	3(1.3)	대학원 이상	7(3.0)	
	단순노무자	16(6.8)	아내 직업	시간제	32(13.7)
	생산직	30(12.8)		단순노무자	23(9.8)
	사무직	79(33.7)		생산직	37(15.8)
	서비스직	28(12.0)		사무직	57(24.4)
	행정 관리직	17(7.3)		서비스직	25(10.7)
	전문직	17(7.3)		행정 관리직	2(0.8)
	소규모 자영업	44(18.8)		전문직	10(4.3)
		소규모 자영업		48(20.5)	

〈표 2〉 2차 본 조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27)

특성	내용	인원(%)	특성	내용	인원(%)
성별	남	104(45.8)	가계월 소득	200만원 미만	8(3.5)
	여	123(54.2)		201~300만원	16(7.1)
주거유형	자가	172(75.8)		301~400만원	40(17.6)
	전세	55(24.2)		401~500만원	54(23.8)
남편 연령	30세~39세	45(19.8)		501~600만원	57(25.15)
	40세~49세	124(54.6)		601만원 이상	52(22.9)
	50세 이상	58(25.6)	아내 연령	30세~39세	74(32.6)
남편 학력	중졸이하	4(1.8)		40세~49세	115(50.7)
	고졸	12(5.3)		50세 이상	38(16.7)
	전문대	36(15.8)	아내 학력	중졸이하	12(5.3)
	대졸	128(56.4)		고졸	31(13.6)
대학원 이상	47(20.7)	전문대		17(7.5)	
		대졸		113(49.8)	
남편 직업	시간제	4(1.8)	대학원 이상	54(23.8)	
	단순노무자	13(5.7)	아내 직업	시간제	54(23.8)
	생산직	18(7.9)		단순노무자	13(5.7)
	사무직	73(32.2)		생산직	13(5.7)
	서비스직	29(12.8)		사무직	85(37.5)
	행정 관리직	24(10.6)		서비스직	24(10.6)
	전문직	28(12.35)		행정 관리직	3(1.3)
	소규모 자영업	38(16.7)		전문직	7(3.1)
		소규모 자영업		28(12.3)	

사에 사용할 2차 척도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2차 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최종적인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척도를 구성하였다.

1)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척도의 예비문항 구성

일-가족 전이에 관련된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일-가족 전이는 일→가족 전이와 가족→일 전이라는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시간, 심리적 긴장, 에너지라는 3가지 전이과정을 거쳐 전이되고,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여가생활, 가정관리의 4가지 영역에서 전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가족 전이의 다차원적 구조를 바탕으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척도 구성을 위한 문항들을 작성하였다. 문항 작성시에는 6차원의 일-가족 전이 구조와 전이발생영역과 관련된 문항, 그리고 일-가족의 긍정적·부정적 전이 문항들이 모두 포함되도록 고려하여 총 102문항의 예비문항들을 구성하였다.

2)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척도의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척도의 예비문항의 구

성 및 내용의 적절성, 응답의 용이성 등을 알아 보기 위해 본 연구자와 전공분야 박사 2명이 함께 이들 102문항들의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우선 문항 내용의 일관성, 문항에 대한 이해도, 각 요인내 문항 간 상호배타성을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여 예비조사에 사용할 72문항을 선정하여 예비척도를 구성하였다.

3)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2012년 11월 6일 ~ 15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맞벌이 기혼 남·녀 각 50명이며, 이 중 97명이 예비조사의 최종분석대상자로 이용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직종과 관련없이 편의표집하였으며, 질문지는 연구대상자의 가정환경조사서와 일-가족 전이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문항에 대한 이해 정도와 질문지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입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추가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회수된 자료는 문항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문항-총점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항의 평균값이 4점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은 4문항과 문항-총점 간의 상관관계가 .30미만인 9문항을 제거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이 문항의 내용에 대해 여러번 질문한 문항과 질문에 기입한 내용에 관한 전문가간 논의를 통해 5문항을 제거한 후, 1차 본 조사에 사용될 54문항을 선정하여 1차 척도를 구성하였다.

4) 1차 본 조사

1차 본 조사는 예비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하여 일→가족 전이 27문항과 가족→일 전이 27문항의 척도로 구성된 1차 척도를 이용하여 2013년 1월 28일 ~ 2월 15일에 걸쳐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맞벌이 부부

2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연구자와 조사원들이 질문지의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질문지를 배부·회수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눈덩이 수집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는 243부였고, 이 중 부실기재 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를 제외한 234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5) 2차 본 조사

2차 본 조사는 1차 본 조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된 일→가족 전이 21문항과 가족→일 전이 19문항의 척도로 구성된 2차 척도를 이용하여 2013년 3월 4일 ~ 18일에 걸쳐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맞벌이 부부 2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연구자와 조사원들이 질문지의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질문지를 배부·회수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눈덩이수집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는 235부였고, 이 중 부실기재 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를 제외한 227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의 연령·학력·직업, 가계의 월소득, 자녀 수·연령, 부부의 가사조력자의 존재 여부, 동거하는 가족원 수와 가족형태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된 가정환경조사서와 예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된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척도로 구성된 자기보고식의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1, 2차 본 조사의 질문지에 사용된 가정환경조사서는 동일하며, 1차 본 조사에 사용된 일-가족 전이 척도는 54문항, 2차 본 조사에 사용된 일-가족 전이 척도는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부

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족 전이와 가족→일 전이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문항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문항과 전체 척도와의 상관, 문항제거시 내적합치도, Cramer's V계수를 산출하였다.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그리고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문항의 문항변별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고,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1차 척도의 검증

1) 1차 척도의 문항양호도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1차 척도의 문항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가족의 긍정적 전이와 관련된 문항들은 역산하여 방향을 일치시키고,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총점간 상관, 문항제거 후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일→가족 전이 27문항과 가족→일 전이 27문항을 분석한 결과 평균이 타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높거나 낮은 문항은 없었으며, 문항-총점 간의 상관관계가 .30 미만인 일→가족 전이의

3문항, 가족→일 전이의 7문항을 제거하였다. 제거된 문항들은 모두 일-가족의 긍정적 전이와 관련된 문항들로써 이는 일-가족의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가 연속선상의 개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개념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제거된 10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Cramer's V계수가 일반적인 수용기준인 .2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1차 척도(27문항)의 문항양호도

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문항-전체 상관	문항 삭제 후 Cronbach α	Cramer's V계수
1	2.72	.964	.459	.941	.641
2	2.16	.677	.491	.941	.673
3	2.76	.870	.617	.939	.723
4	2.72	1.009	.477	.941	.798
5	2.83	1.010	.631	.939	.775
6	2.68	.935	.673	.939	.566
7	2.84	.969	.587	.940	.675
8	3.10	1.013	.673	.938	.704
9	2.67	.836	.169	.948	.202
10	2.79	.812	.677	.939	.728
11	3.00	.798	.678	.939	.654
12	2.67	.834	.557	.940	.741
13	2.96	.878	.730	.938	.598
14	3.19	.865	.670	.939	.752
15	2.79	.876	.608	.939	.544
16	2.74	.930	.739	.938	.621
17	2.83	.954	.731	.938	.745
18	3.02	.772	.008	.945	.107
19	3.08	.888	.631	.939	.744
20	2.90	.937	.806	.937	.657
21	2.84	.914	.847	.936	.812
22	2.72	.795	.745	.938	.692
23	3.17	.986	.798	.937	.657
24	3.14	.946	.731	.938	.703
25	3.17	.997	.764	.937	.711
26	3.28	1.000	.751	.937	.755
27	2.88	.864	.047	.945	.187

〈표 4〉 다차원적 가족→일 전이
2차 척도(27문항)의 문항양호도

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문항-전체 상관	문항 삭제 후 Cronbach α	Cramer's V계수
28	2.52	.863	.570	.906	.554
29	2.28	.834	.689	.904	.634
30	2.41	.858	.676	.904	.625
31	2.30	.866	.718	.903	.698
32	2.36	.856	.752	.902	.767
33	2.98	.742	.509	.907	.616
34	2.31	.903	.813	.901	.695
35	2.31	.872	.563	.906	.735
36	2.44	.940	.589	.905	.684
37	2.33	.743	.523	.907	.602
38	3.39	.681	.005	.914	.145
39	2.42	.788	.746	.903	.718
40	2.38	.885	.747	.902	.878
41	2.61	.687	-.014	.915	.187
42	2.81	.804	.018	.915	.177
43	2.66	.890	.714	.903	.631
44	2.46	.862	.699	.903	.745
45	2.62	.724	.023	.915	.107
46	2.80	.873	.118	.918	.312
47	2.59	.815	.648	.904	.703
48	2.67	.908	.773	.902	.792
49	2.32	.822	.731	.903	.696
50	2.34	.799	.567	.906	.606
51	3.05	.697	.187	.912	.375
52	2.48	.825	.372	.909	.543
53	2.46	.830	.658	.904	.755
54	2.53	.702	.107	.913	.275

2) 1차 척도의 타당도 검증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1차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행렬의 요인 변량을 최대화 되도록 요인축을 회전시켜 각 요인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용이한 방법인 직각회전(varimax) 방식을 적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일→가족 전이와 가족→일 전이라는 2가지 전이유형, 시간, 심리적 긴장, 에너

지라는 3가지 전이과정으로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의 이론적 토대를 확정하였기 때문에 요인의 수를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문항양호도 검사에서 제거된 문항들을 요인분석에서도 제외하였다.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1차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3개의 하위요인이 산출되었고, 이는 일→가족 전이를 67.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된 첫번째 하위요인은 전체 변량의 34.8%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직장에서의 긴장과 스트레스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기 어렵다거나, 취미생활이나 집안 일을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심리적 긴장으로, 두번째 하위요인은 전체 변량의 19.5%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직장의 업무시간이나 일이 많아서 배우자나 자녀와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다거나, 여가시간을 갖기 어렵다, 혹은 집안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시간으로, 세번째 하위요인은 전체 변량의 13.0%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퇴근 후 피곤하여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하기가 힘들다거나 취미생활이나 집안 일을 하기 힘들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에너지로 명명하였다. 이 때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내용상 맞지 않는 3문항(2, 23, 24번)을 삭제하고 일→가족 전이 척도를 시간(7문항), 심리적 긴장(8문항), 에너지(6문항)의 하위요인 총 21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일→가족 전이 1차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일→가족 전이 1차 척도에서 산출된 3개의 하위영역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구성한 시간, 심리적 긴장, 에너지라는 전이의 세 과정과 일치하며, 각 전이과정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여가생활, 가정관리라는 4가지 전이발생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 다차원적 가족→일 전이 1차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3개의 하위요인이 산출되었으며, 이는 가족→일 전이를 65.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된 첫번째 하위요인은 전체 변량의 25.3%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면 피곤하여 직장 일을 완수하기 어렵다거나 집안 일 때문에 지쳐서 직장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에너지로, 두번째 하위요인은 전체 변량의 20.3%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으로 인해 일에 대한 시간투자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거나, 가정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느라 업무시간이 방해를 받는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시간으로, 세번째 하위요인은 전체 변량의 19.4%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배우자나 자녀 문제로 직장에서의 업무에 집중하

기 힘들다거나 집안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 직장 에서 일에 몰두하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심리적 긴장으로 명명하였다. 이 때 요인부하량이 낮은 1문항(33번)을 삭제하고 가족→일 전이 척도를 시간(8문항), 심리적 긴장(5문항), 에너지(6문항)의 하위요인 총 19문항으로 수정하였다. 가족→일 전이 1차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족→일 전이 1차 척도에서 산출된 3개의 하위요인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구성된 시간, 심리적 긴장, 에너지라는 전이의 세 과정과는 일치하였으나, 각 전이과정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정관리의 전이발생영역을 포함하고 있

<표 5> 일→가족 전이 1차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번호	요인부하량			h ²
	심리적 긴장	시간	에너지	
15	.771	.034	.092	.604
16	.720	.153	.379	.686
13	.701	.439	-.062	.688
11	.627	.151	.401	.576
12	.603	.178	.082	.502
17	.603	.452	.240	.625
14	.580	.569	-.131	.677
10	.454	.238	.639	.671
5	.282	.844	.012	.791
4	.016	.787	.270	.692
3	.109	.748	.451	.774
7	.291	.670	.193	.570
6	.275	.600	.500	.685
8	.415	.581	.287	.592
1	.075	.301	.763	.679
20	.333	.150	.716	.798
19	.486	.004	.682	.667
21	.075	.339	.463	.773
26	.256	.354	.395	.633
25	.155	.366	.373	.652
22	.232	.196	.356	.665

<표 6> 다차원적 가족→일 전이 1차 척도(19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번호	요인부하량			h ²
	에너지	시간	심리적 긴장	
48	.818	.264	.265	.809
47	.797	.090	.234	.698
49	.666	.308	.336	.652
53	.623	.080	.464	.610
52	.515	.114	.090	.586
50	.470	.096	.533	.514
28	.131	.833	.192	.747
29	.200	.831	.351	.854
30	.414	.771	.120	.781
31	.381	.725	.307	.766
34	.388	.409	.643	.731
36	.155	.425	.574	.535
32	.370	.357	.645	.680
35	.253	.354	.519	.498
37	.178	.340	.603	.495
39	.420	.336	.590	.653
40	.374	.302	.478	.636
43	.325	.130	.396	.728
44	.274	.198	.382	.691

〈표 7〉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1차 척도의 신뢰도분석 결과

전이과정	전이유형	일→가족 전이		가족→일 전이	
		문항수	Cronbach α	문항수	Cronbach α
시간		7	.88	8	.90
심리적 긴장		8	.89	6	.87
에너지		6	.92	5	.86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은 삶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금전적·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로 인해 여가생활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여겨지는 개인이나 가족의 여가생활로 인해 일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3) 1차 척도의 신뢰도 검증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1차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Cronbach α 는 일→가족 전이(21문항)가 .94, 가족→일 전이(19문항)가 .91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척도의 요인별 Cronbach α 계수는 <표 7>과 같다.

2.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2차 척도의 검증

1) 2차 척도의 문항양호도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2차 척도의 문항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총점간 상관, 문항제거 후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 <표 9>와 같다. 문항-총점 간의 상관관계가 .30 미만인 문항은 없었고 Cramer's V계수도 모두 .2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에서는 일→가족 21문항과 가족→일 19문항을 모두 사용하기로 하였다.

〈표 8〉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2차 척도(21문항)의 문항양호도

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문항-전체 상관	문항 삭제 후 Cronbach α	Cramer's V계수
1	2.70	.940	.427	.696	.684
2	2.83	.893	.602	.825	.602
3	2.75	1.017	.478	.669	.545
4	2.89	1.014	.649	.847	.718
5	2.69	.953	.742	.838	.767
6	2.89	.925	.621	.758	.616
7	3.16	.939	.711	.851	.695
8	2.83	.800	.648	.727	.735
9	3.03	.759	.641	.665	.684
10	2.67	.838	.499	.763	.602
11	3.00	.845	.662	.846	.687
12	3.20	.839	.643	.797	.718
13	2.79	.882	.589	.765	.878
14	2.76	.942	.699	.805	.687
15	2.86	.964	.739	.687	.677
16	3.15	.891	.642	.798	.631
17	2.91	.954	.769	.832	.745
18	2.85	.911	.809	.828	.634
19	2.73	.785	.696	.830	.625
20	3.19	.995	.756	.860	.698
21	3.35	1.001	.727	.853	.767

〈표 9〉 다차원적 가족→일 전이 2차 척도(19문항)의 문항양호도

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문항-전체 상관	문항 삭제 후 Cronbach α	Cramer's V계수
28	2.56	.894	.573	.945	.641
29	2.33	.850	.733	.942	.673
30	2.43	.882	.707	.942	.723
31	2.34	.870	.759	.941	.798
32	2.38	.852	.721	.942	.775
34	2.35	.938	.792	.941	.566
35	2.34	.910	.530	.945	.675
36	2.49	.962	.564	.945	.704
37	2.34	.802	.609	.944	.602
39	2.43	.822	.752	.942	.728
40	2.34	.898	.772	.941	.654
43	2.68	.923	.739	.942	.741
44	2.44	.888	.738	.942	.598
47	2.60	.861	.647	.943	.752
48	2.67	.941	.761	.941	.544
49	2.27	.843	.744	.942	.621
50	2.38	.777	.587	.944	.745
52	2.47	.824	.408	.947	.507
53	2.50	.855	.642	.943	.744

〈표 10〉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2차 척도(18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번호	요인부하량			h ²
	에너지	심리적 긴장	시간	
17	.840	.246	.245	.795
16	.811	.110	.134	.676
18	.671	.506	.255	.749
19	.658	.499	.078	.660
20	.531	.604	.150	.691
21	.513	.654	.168	.705
11	.463	.706	.068	.707
12	.377	.526	.290	.652
8	.618	.418	.147	.692
9	.522	.418	.017	.520
15	.558	.364	.434	.592
5	.366	.174	.794	.779
2	.098	.384	.792	.775
1	.281	-.098	.757	.784
3	-.048	.354	.747	.643
4	.119	.532	.606	.695
6	.089	.759	.369	.605
7	.228	.752	.336	.663

2) 2차 척도의 타당도 검증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2차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1차 척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직각회전(varimax) 방식을 적용하고 요인수를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2차 척도에서는 3개의 하위요인이 산출되었고, 이는 일→가족 전이를 66.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산출된 세 개의 하위요인은 1차 본 조사의 요인구조와 동일하였으며, 에너지 하위요인은 전체 변량의 31.8%, 심리적 긴장은 20.9%, 시간은 14.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이발생영역 역시 동일하였으므로 그대로 요인구조를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내용상 맞지 않는 3문항(8, 13, 14번)을 삭제하고 일→가족 전이 척도를 시간(7문항), 심리적 긴장(5문항), 에너지(6문항)의 하위요인으로 총 18문항으로 수정하였다. 구체적인 요인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또 가족→일 전이 2차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이 척도는 가족→일 전이를 63.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의 하위요인이 산출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산출된 세개의 하위요인은 1차 본 조사의 요인구조와 동일하였으며, 심리적 긴장 하위요인은 전체 변량의 24.5%, 시간은 20.9%, 에너지는 18.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표 11> 다차원적 가족→일 전이 2차 척도(18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번호	요인부하량			h ²
	심리적 긴장	시간	에너지	
13	.605	.331	.389	.684
10	.586	.354	.426	.701
11	.582	.399	.381	.713
12	.420	.437	.538	.658
9	.346	.476	.207	.488
1	.105	.850	.175	.663
2	.385	.837	.071	.857
3	.161	.758	.450	.822
4	.339	.739	.326	.774
8	.518	.499	.004	.751
6	.730	.463	.126	.536
5	.573	.459	.253	.603
7	.497	.323	.121	.438
14	.362	.115	.803	.825
15	.476	.262	.734	.875
18	.027	.161	.702	.673
16	.662	.273	.396	.643
19	.731	.085	.340	.547

고, 전이발생영역 역시 동일하였으므로 그대로 요인구조를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요인부하량이 낮은 1문항(17번)을 삭제하고 가족→일 전이 척도를 시간(8문항), 심리적 긴장(5문항), 에너지(5문항)의 하위요인 총 18문항으로 수정하였다. 구체적인 요인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3) 2차 척도의 신뢰도 검증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2차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Cronbach α 는 일→가족 전이(18문항)가 .92, 가족→일 전이(18문항)는 .91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척도의 요인별 Cronbach α 계수는 <표 12>와 같다.

3.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최종 척도

1) 문항변별도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최종 척도의 문항변별도를 검증하기 위해 총점을 근거로 일-가족 전이 총점 상위 33%인 상집단과 하위 33%인 하집단 간에 문항별로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가족 전이 정도에 따라 전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척도는 상위 집단간 차이를 잘 변별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임이 검증되었다.

2) 확인적 요인분석

다차원인 일-가족 전이 최종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AMOS 20. 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최대우도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전반적인 적합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측정치인 χ^2 값과 표본 크기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홍세희, 2000) TLI와 CFI, RMSEA

<표 12>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2차 척도의 신뢰도분석 결과

전이과정 \ 전이유형	일→가족 전이		가족→일 전이	
	문항수	Cronbach α	문항수	Cronbach α
시간	7	.88	8	.90
심리적 긴장	5	.84	5	.88
에너지	6	.92	5	.85

지수를 기준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일반적으로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RMSEA는 .05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이고 .05~.08이면 적절한 적합도라 할 수 있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χ^2 값이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델이 다소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도 할 수 있지만 χ^2 값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므로 다른 적합성 지수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즉 본 모형의 TLI는 .836과 .854, CFI는 .828과 .862, 그리고 RMSEA는 .073과 .061로 수용할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여

<표 13> 일-가족 전이 정도에 따른 문항간 차이 검증

문항번호	일→가족 전이			가족→일 전이		
	하(N=60) M(SD)	상(N=79) M(SD)	t 값	하(N=61) M(SD)	상(N=60) M(SD)	t 값
1	2.05(.67)	3.19(.80)	- 9.09***	1.90(.65)	3.18(.85)	- 9.27***
2	2.25(.60)	3.54(.50)	-13.50***	1.59(.49)	3.10(.81)	-12.26***
3	2.05(.85)	3.37(.75)	- 9.48***	1.74(.63)	3.15(.79)	-10.78***
4	2.12(.66)	3.57(.85)	-11.24***	1.56(.50)	3.10(.63)	-14.89***
5	1.97(.55)	3.48(.71)	-14.11***	1.52(.50)	3.17(.37)	-20.35***
6	2.10(.73)	3.65(.60)	-13.33***	1.49(.50)	3.35(.70)	-16.59***
7	2.23(.62)	3.95(.52)	-17.19***	1.95(.88)	2.92(.85)	- 6.12***
8	2.43(.64)	3.48(.61)	- 9.64***	1.90(.83)	3.25(.57)	-10.41***
9	2.22(.78)	3.08(.79)	- 6.35***	1.80(.54)	2.97(.71)	-10.09***
10	2.32(.74)	3.44(.59)	- 9.59***	1.61(.49)	3.22(.58)	-16.36***
11	2.50(.65)	3.72(.59)	-11.34***	1.54(.50)	3.32(.72)	-15.63***
12	1.97(.55)	3.68(.46)	-19.39***	1.85(.54)	3.53(.50)	-17.67***
13	2.25(.60)	3.59(.79)	-11.38***	1.77(.58)	3.32(.62)	-14.01***
14	1.90(.47)	3.59(.77)	-15.86***	1.92(.61)	3.33(.72)	-11.54***
15	1.83(.37)	3.53(.61)	-20.08***	1.84(.55)	3.58(.74)	-14.65***
16	1.98(.39)	3.28(.65)	-14.44***	1.59(.49)	2.93(.75)	-11.53***
17	2.10(.54)	3.91(.58)	-18.88***	2.00(.70)	2.98(.85)	- 6.89***
18	2.28(.82)	3.91(.64)	-12.63***	1.95(.59)	3.28(.80)	-10.37***

*** p<.001

<표 14>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적합도 지수	χ^2	df	p	RMSEA	TLI	CFI
		분석결과	일→가족		1239.277	132	.000	.073
가족→일			1221.418	132	.000	.061	.854	.862
적합여부						적합	적합	적합

〈표 15〉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척도

전이 유형	전이 과정	문항 내용	전이발생 영역
일→가족 전이	시간 (7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일이 많아서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다. · 직장 일이 많아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다. · 직장의 업무시간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 · 직장의 업무시간으로 인해 여가시간을 갖기가 어렵다. · 직장 일이 많아서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즐기기가 어렵다. · 직장 일에 투자하는 시간으로 인해 집안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 직장의 업무시간으로 인해 집안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 	부부관계 부모-자녀 부모-자녀 여가생활 여가생활 가정관리 가정관리
	심리적 긴장 (5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에서 예민해져서 돌아오기 때문에 마음만큼 좋은 배우자가 되지 못한다. · 직장에서의 긴장과 스트레스로 퇴근 후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 · 직장에서 예민해져서 돌아오기 때문에 마음만큼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다. ·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퇴근 후 취미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집안 일을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느낀다. 	부부관계 부모-자녀 부모-자녀 여가생활 가정관리
	에너지 (6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에서 돌아온 후 지쳐서 원하는 만큼 배우자와 함께 하기가 힘들다. · 직장 일로 피곤하여 배우자에게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 · 직장에서 돌아온 후 지쳐서 원하는 만큼 자녀들과 함께 하기가 힘들다. · 직장 일로 피곤하여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 · 퇴근 후에는 피곤해서 집안 일을 하기가 어렵다. · 직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여가생활을 하기 힘들다. 	부부관계 부부관계 부모-자녀 부모-자녀 가정관리 여가생활
가족→일 전이	시간 (8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으로 인해 업무 성과에 도움이 될 만한 시간투자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 · 직장 동료들은 내가 배우자와 관계된 일로 업무에 몰두하지 않는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으로 인해 업무 성과에 도움이 될 만한 시간투자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 · 직장 동료들은 내가 자녀와 관계된 일로 업무에 몰두하지 않는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 가족행사 때문에 업무시간이 부족하거나 방해 받는다. · 집안 일 때문에 업무시간이 부족하거나 방해 받는다. · 집안 일 때문에 업무를 미룬 적이 있다. · 직장 일 하는데 보내야 할 시간을 종종 가정의 개인적인 일을 하는 데 사용한다. 	부부관계 부부관계 부모-자녀 부모-자녀 가정관리 가정관리 가정관리
	심리적 긴장 (5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인해 직장에서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 부모역할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장에서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 자녀문제로 인해 직장에서의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다. · 집안 일을 생각하면 직장 일을 할 때도 마음이 불편하다. · 집안 일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 일에 몰두하기 어렵다. 	부부관계 부모-자녀 부모-자녀 가정관리 가정관리
	에너지 (5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면 피곤하여 직장 일을 완수하기가 어렵다. ·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면 피곤하여 직장 일을 완수하기가 어렵다. · 자녀를 보살피는 일로 피곤하여 직장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 집안 일 때문에 나는 보통 지쳐서 직장에 도착한다. · 집안 일로 인해 잠이 부족하여 직장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부부관계 부모-자녀 부모-자녀 가정관리 가정관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본 연구의 설정모형은 적합성을 검증받은 타당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3)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최종 척도

이상과 같은 1, 2차 자료분석 과정을 거쳐 확정한 최종적인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척도는 <표 15>와 같다.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자녀 맞벌이 부부들의 일-가족의 전이유형과 전이과정, 전이발생영역으로 구성된 타당하고 신뢰로운 다차원적인 일-가족 전이 척도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구찰을 통해 102개의 예비문항을 선정하여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72문항으로 구성된 예비척도를 작성하였으며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문항별 빈도, 평균, 문항-총점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1차 본조사에 사용할 54문항의 1차 척도를 구성하였다.

둘째, 1차 본 조사를 실시하고 54문항의 문항 양호도를 살펴본 후 일→가족 전이에서 3문항, 가족→일 전이에서 7문항을 제거하였다. 또한 이들 문항들을 삭제한 후 1차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세계의 하위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를 각각 시간, 심리적 긴장, 에너지로 명명하였다. 또한 이 때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내용상 맞지 않는 문항을 일→가족 전이에서 3문항, 가족→일 전이에서 1문항을 삭제하고 40문항으로 구성된 2차 척도를 구성하였다. 1차 척도의 Cronbach α 는 일→가족 전이가 하위 요인별로 .88 ~ .92 가족→일 전이가 .86 ~ .90

사이에 분포하였다.

셋째, 2차 본 조사를 실시하고 40문항의 문항 양호도를 살펴본 결과 문항양호도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1차 척도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보였다. 이 때 내용상 맞지 않는 문항을 일→가족 전이에서 3문항, 가족→일 전이에서 1문항을 삭제하고 일→가족 전이 18문항, 가족→일 전이 18문항으로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척도를 확정하였다. 2차 척도의 Cronbach α 는 일→가족 전이가 하위요인별로 .88 ~ .92 가족→일 전이가 .85 ~ .90 사이에 분포하였다.

네째, 1, 2차 자료분석을 통해 확정된 36문항의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TLI, CFI, RMSEA의 모형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적합성을 검증받은 타당한 모형임을 확인하고 최종적인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척도를 확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일-가족 전이 척도는 Carlson, Kacmar와 Williams(2000), Miller(2001)가 제시한 6가지 차원 즉, 전이의 유형인 일→가족 전이와 가족→일 전이 그리고 전이과정인 시간, 심리적 긴장, 에너지라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여가생활, 가정관리의 전이발생영역을 포함한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척도임이 검증되었다. 이 척도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개발한 유자녀 맞벌이 부부의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척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연구대상자의 직업이나 자녀의 연령을 통제하지 않았다. 이 점은 개발된 본 척도의 장점이 될 수도 있으나 개인의 일과 가족생활은 중사하는 근무환경이나 가정환경에

따라 매우 상이하므로 각 개인에게 적용함에 있어 자신의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의 직업이나 자녀의 연령 등과 같이 일-가족 전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고려한 일-가족 전이 척도가 개발된다면 일-가족의 부정적 전이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전이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 전이를 측정함에 있어 일-가족의 긍정적·부정적 전이를 함께 측정하려 시도하였으나 본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일-가족의 긍정적 전이는 부정적 전이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갖지 못하여 문항양호도 평가에서 모두 제거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일-가족의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는 연속 선상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선은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료가 축적된다면 일과 가족의 상호작용이 갈등적 측면 뿐만 아니라 향상적 측면에서도 보다 심도있게 고찰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일-가족 전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1, 2차에 걸친 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척도를 개발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인 다차원적 일-가족 전이 척도로써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하여 척도의 안정성이 다소 확보되지 못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보하여 척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 중 한쪽만을 연구대상자로 하였으나 가족생활은 맞벌이 부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역이고 어느 한쪽의 일 환경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을 함께 쌍으로 하여 일-가족 전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로 제한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맞벌이 부부로 일반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성경(2011). 기혼 취업여성의 특성이 일-가족의 긍정적 전이 및 부정적 전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3, 69-94.
- 2) 김옥선·김효선(2010). 다중 역할의 상호향상 효과; 일-가정 영역 간 자원의 긍정적 전이에 관한 분석. *경영학연구*, 39(2), 375-407.
- 3) 김진희·한경혜(2002). 남성과 여성의 일-가족 전이와 관련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0(11), 55-69.
- 4) 배지혜·서혜영·이숙현(2002). 사무직 남성의 '일-가정 갈등' 및 '가정-일 갈등'과 부모역할 만족도. *가족관계학회지*, 7(2), 43-64.
- 5) 송다영·장수정·김은지(2010). 일가족양립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직장내 지원과 가족지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3), 27-52.
- 6) 우종용·이찬형·김지은(2009). 근로자의 가족친화성교육프로그램 참여가 일-가족지향성, 일-가족전이 및 가족여가실천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2), 15-26.
- 7) 원숙연·박지원(2009). 사회적 지원이 일-가족 갈등 및 일-가족 축진에 미치는 영향; 남녀간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6(2), 3-32.
- 8) 유성경·홍세희·박지아·김수정(2012). 한국 여성의 일-가족 갈등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1), 1-29.
- 9) 전서영·박정윤·김양희(2008). 기혼 남녀의 일-가족 갈등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에 관한

-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3), 59-79.
- 10) 정영금(2006).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균형감과 지원용이도, 요구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107-118.
 - 11) 최인영·최혜경(2009). 한국 중년세대의 가치관 특성 및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 81-109.
 - 12)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서울: 통계청.
 - 13) _____(2012). 2012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서울: 통계청.
 - 14) Allen, T.D., Herst, D.E., Carly, S.B. & Martha, S.(2000).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work to family conflict : A review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2), 278-308.
 - 15) Brisbois, R.M.(2002).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work family spillover. Un published dissertation of M. B. A. Carleton University.
 - 16) Byron, K.(2005). A meta-analytic review of work-family conflict and its antece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2), 169-198.
 - 17) Carlson, D.S., Kacmar, K.M., Wayne, J.H. & Grzywacz, J.G.(2006). Measuring the positive side of the work-family interfac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work-family enrichment scal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8*(1), 131-164.
 - 18) Carlson, D.S., Kacmar, K.M. & Williams, L.J.(2000).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2), 249-276.
 - 19) Cinamon, R.G. & Rich, Y.(2002). Profiles of attribution of importance to life roles: Implications for the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2), 212-220.
 - 20) Clark, S.C.(2000). Work/family border theory ; A new theory of work/life balance. *Human Relations, 53*(6), 747-770.
 - 21) Crouter, A.C.(1984). Participative work as an influence on human develop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5*(1), 71-90.
 - 22) Ford, M.T., Heinen, B.A. & Langkamer, K.L.(2007). Work and family satisfaction and conflict : A meta analysis of cross domain rel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1), 57-80.
 - 23) Frone, M.R.(2003). Work-family balance. In Quick, J.G. & Tetrick, L.E.(Eds.), *Handbook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Washington, DC : APA.
 - 24) Frone, M.R., Russell, M. & Cooper, M.L.(1992).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 Testing a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3), 65-73.
 - 25) Frone, M.R., Yardley, J.K. & Markel, K.S.(1997). Developing and testing an integrative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2), 145-167.
 - 26) Grzywacz, J.G., Almeida, D.M. & McDonald, D.A.(2002). Work-family spillover and daily reports of work and family stress in the adult labor force. *Family Relation, 51*(1), 28-36.
 - 27) Hochschild. A.R.(1997). *The time blind : When work becomes home and home becomes work*. New Your : Metropolitan

- Books.
- 28) Kim, Yojin(2007). *Crossover and spillover from work to family among working couples : Understanding parents' daily emotions*. Unpublished dissertation of Ph. D. The University of Chicago.
- 29) Matthew, F.B.(2000). *Mechanisms linking work-to-family spillover and parents' knowledge of their children's daily lives*. Unpublished dissertation of Ph. D.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30) Miller, W.A.(2001). *Work spillover onto family life for male and female executives : An analysis of different spillover processes*. Unpublished dissertation of Ph. D.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31) Netemeyer, R.G., Boles, D.R. & McMurrian, R.(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work family conflict and family work conflict scal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4), 400-410.
- 32) Piotrowski, C.S., Chone, B.G. & Coray, K.E.(1993). Working conditions and well being among women office worker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4, 263-281.
- 33) Small, S.A. & Riley, D.(1990). Toward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work spillover into family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1), 51-61.
- 34) Stephens, G.K. & Sommer, S.M.(1996). The measurement of work to family conflict.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6, 475-486.

- 투 고 일 : 2013년 7월 1일
- 심 사 일 : 2013년 7월 8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8월 4일